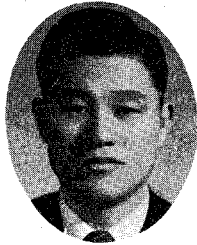


70년대 축산물 소비와

배합사료 생산추세 (下)



설 동 섭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관)

70년도 초기의 사료에 비하면 그동안 곡류의 혼합 비율이 상당히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변 가격으로 환산해서 그동안 값싼 사료가 공급 되었다는 것은 70년대에 급증된 축산물 수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업을 오늘날과 같이 크게 진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축산인은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다.

특히 60년대의 축산은 주로 사료 파동에 의하여 호, 불황에 좌우 되었지만 70년대에 들어 와서는 1970~1974년을 제외하고는 사료 가격 급등과 사료의 물량 부족 때문에 불황을 겪은 일은 없었고 오히려 터무니 없는 가격상승이 사육 붐을 일으켜서 과잉생산을 초래하므로 해서 발생하는 불황이 주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면 이렇게 배합사료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요인들은 살펴 보기로 하자.

3. 배합사료 원료 가격 추세

배합사료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료곡물인 옥수수는 거의 98% 이상을 도입

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 시세에 따라서 사료가격이 결정 될 정도였다.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국제적인 사료 파동이 일어난 1974년~1975년을 제외 하고는 비교적 안정된 가격으로 배합사료를 공급할 수 있었던 배경은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어 왔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류 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 시카고의 곡물 거래소에서 톤당 50~60불선에 머물던 옥수수 가격이 당시 닉슨 행정부가 OPEC 국가들의 유가 인상에 대하여 미국이 생산하는 수출 식량을 무기화 하면서 오르기 시작하여 설상가상으로 1974년도에 미국의 곡물 생산이 흉작을 맞이하여 1974년 10월에는 무려 147불 선 까지 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곡물의 좋은 가격에 자금을 받아 미국의 곡물 재배 면적이 확대 되는 동시에 1979년 까지 계속 평면작 이상의 생산고를 나타내어 충분한 곡물량이 확보 되었고 포드와 카터 행정부가 식량의 무기화 정책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완화하자 차차로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70불 선 까지 다시 회복 되었다. 몇차

례의 유가인상으로 인플레이가 되면서 옥수수 가격도 조금씩 올라 1980년 6월까지 100불 선에서 거래되었다. 작년도의 이상기온은 미국의 곡물 생산을 상당히 감소시켜 다시 옥수수 가격이 100불에서 최근 150불 선까지 올랐고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까지의 운송비가 유가인상으로 톤당 50불까지 상승하자, 우리나라 도착 가격이 205불 선까지 폭등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이와같이 치솟는 사료 곡물의 국제 시세는 남반구에서 봄에 수확되는 사료 곡물과 북반구에서 생산되는 금년 가을산 사료곡물의 풍흉에 따라 다시 달라지겠지만 평년작이 보장된다는 전망만 있으면 봄에 가서 다소 누그러지거나 현시대를 유지하는 보합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흉작이 되는 날에는 1974년의 예로 보아 앞으로 40~50불 정도는 더 오를것이에 상된다. 그리고 사료곡물의 국제가격을 뒤에서 조정하는 메이저들이 횡포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가격 상승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0간의 옥수수 국제시세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과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톤당 가격은 70년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표 7 과 같았다. 1973년 하반기 부터 1975년 상반기까지 유류파동과 흉작의 충격을 받았을 때는 현지 거래가격이 원화 가격으로 70년대 초 보다 약 50% 정도 올라서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상당히 큰 압박을 주었지만 1975년 하반기 이후 부터는 완전히 회복되어 계속 유지 하다가 1977년 하반기 이후 부터는 오히려 70년도 초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거래 되어서 그동안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정말 값싼 가격으로 옥수수를 도입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된 가격의 배합사료를 공급할 수 있었다. 이 거래가격이 최근 150불 선까지 올랐다고는 하나 이것은 70년도의 초기에 50~60불 선과 맞먹는 가격으로서 액면가격은 올랐지만 인플레이를 제외하면 비슷한 가격으로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다시 운송비를 합한 한국 도착가격으로 본다면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과거 10년간 미국 및 태국으로부터 도입한 옥수수의 도착 기준 가격을 년도별로 비교해 보면 70년도에 도입 평균이 73불 22전으로 부터 시작하여 최근 197불 42전으로 2.7배가 올랐으나 불변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톤당 22,500원 내외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1973~1975년의 3년간에 걸쳐 도입된 옥수수가 톤당 30,700~33,300원으로 38~40% 정도가 높았던 것 이외에는 거의 같거나 1977~1980년 상반기의 3년 반 간에는 오히려 14~23% 정도 싼 가격으로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료 파동이 끝나는 1975년도 부터 사료가격 안정을 위하여 안전기준 가격을 설정 하였는데 한국 도착가격을 불변가격으로 하지 않고 미화로 고정하기 때문에 사료안정기금 조성에 다소는 도움이 되었으나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안정기준 가격을 결정 할 때는 원화 불변가격을 적용하여 운용하면 기금 조성도 많이 되고 물가상승에 따라 사료 가격도 현실화 하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옥수수의 공급 가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원료 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공 부산물, 강류, 박류 및 어분 등도 포함하면 배합사료의 30~40%를 차지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공 부산물은 그동안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사료 공장에 계속 공급 되었고 몇차례 현실화 했다고는 하나 불변가격으로 보면 70년도 초기보다 10~25%정도 싸다 특히 소맥피는 관수, 민수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부에서 통제하여 사료공장에 배정 하였기 때문에 비록 뒷 거래에서는 양측가가 비싸게 사다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별로 무리없이 수급 되었고 박류공급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

표 6. 옥수수 국제 가격 추세 (시카고)

(단위 : \$ / 톤)

월별 년도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72	50.00 - 62.64 60.00 - 70.00												10
'73	62.25	63.43	63.04	63.82	77.71	96.13	93.87	117.41	96.92	97.74	97.61	105.20	15
'74	112.46	122.14	119.57	106.38	106.47	113.57	131.74	143.90	140.93	146.69	138.84	138.37	20
	163.49	168.16	155.45	154.52	150.79	155.66	167.95	181.71	171.68	187.27	181.12	173.08	
'75	125.58	119.18	112.13	114.88	109.97	110.71	115.81	124.23	119.78	109.43	102.241	102.07	25
	161.97	151.01	142.49	144.41	126.47	125.92	129.18	146.36	143.32	138.41	130.06	128.63	
'76	103.03	105.39	105.46	105.98	112.09	116.82	118.00	113.47	112.29	99.28	93.18	96.29	25
	128.93	128.24	126.97	125.54	132.82	137.80	137.17	132.55	135.38	130.17	121.51	121.98	
'77	100.17	101.15	100.52	99.92	95.67	90.73	83.60	71.70	72.47	74.09	86.14	88.02	25
	130.11	130.49	124.96	124.79	119.85	114.96	108.22	100.37	102.17	107.63	113.35	120.19	
78	87.15	87.89	93.77	100.27	101.53	99.83	93.32	85.99	84.86	88.22	90.97	90.87	30
	121.86	122.65	130.31	132.78	134.48	129.62	120.54	116.44	115.38	119.99	119.46	118.30	
'79	90.68	94.02	96.51	100.79	104.70	111.43	117.94	111.11	110.07	108.92	101.38	106.32	35
	126.08	128.48	126.44	136.43	141.80	161.73	169.40	160.62	160.59	161.95	165.16	166.41	
'80	100.34	103.76	102.10	106.06	106.45	106.90	121.52	130.75	135.61	133.78	134.99	148.51	40-50
	145.72	151.94	149.21	147.80	150.15	150.74	155.06	173.24	171.32	174.04	184.49	197.42	

- * 1. 위 숫자는 시카고 거래가격 및 숫자는 C&F 가격임
- 2. 비고란의 숫자는 미국 → 한국운송비(톤당) 추정치임.

입과 민간 착유공장 생산분을 가격 통제하여 불변가격으로 보면 오히려 쌀기 때문에 배합 사료 가격에 쌀 방향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분만이 연안어종과 원양어종으로 완전 국산화가 될 때 까지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안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사료가격 자율화와 경기예고 활용

지난해 말 부터 사료가격을 자유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당국으로 부터 사료가격을 통제 받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자극 한다는 이유로 상당 기

간 동안 가격을 동결 당하여 왔다. 사료업자들은 적자를 무한정 감당 할 수 없으므로 사료의 질을 검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낮추므로서 양축가에게 큰 피해를 주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의 하나이고 다음은 사료사업의 이윤을 5%로 제한해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사료공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재투자 할 여력이 축적되지 않아서 사료공업 육성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소 사료공장들이 시설의 현대화나 품질 개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도 장사를 할 수 있으므로 안이한 존속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정부에서는 일단 자유화를 단행했으나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고

표 7. 옥수수 국제가격 추세 ('70년도 기준 불변 가격 환산)

(단위 : 원/ 톤)

월별 년도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72	15,077-18,889 18,092-21,107												3,015
'73	19,584	19,860	19,692	19,796	23,937	29,565	28,628	35,056	28,490	28,668	28,277	28,901	4,520
'74	29,333 42,642	27,823 38,306	26,434 34,367	22,577 32,793	22,433 31,798	23,673 32,446	27,161 34,627	29,409 37,136	28,891 35,195	29,979 38,272	27,747 36,197	26,191 32,761	4,224
'75	27,404 35,344	25,867 32,775	24,067 30,583	23,894 30,036	22,429 25,795	22,364 25,436	23,181 25,857	24,673 29,068	23,731 28,394	21,495 27,188	19,985 25,424	19,573 24,666	5,084
'76	19,313 24,168	19,642 23,900	19,549 23,536	19,518 23,121	20,480 24,268	21,232 25,045	21,310 24,772	20,401 23,831	20,069 24,196	17,679 23,180	16,435 21,433	16,965 21,492	4,535
'77	17,458 22,677	17,257 22,262	17,065 21,214	16,892 21,096	16,078 20,141	15,122 19,160	13,866 17,950	11,808 16,529	11,846 16,700	12,074 17,540	13,981 18,397	14,093 19,243	4,140
'78	13,642 19,075	13,522 18,869	14,381 19,984	15,285 20,241	15,352 20,334	14,895 19,339	13,863 17,907	12,763 17,282	12,352 16,795	12,704 17,279	13,019 16,169	12,966 16,880	4,470
'79	12,859 17,880	13,133 17,946	13,173 17,258	13,387 18,121	13,528 18,321	14,313 20,774	14,415 19,631	13,097 18,930	12,881 18,952	12,657 19,193	11,801 19,225	12,258 19,186	4,390
'80	13,547 19,674	12,203 17,869	11,659 17,039	11,683 16,755	11,878 16,755	12,050 16,990	13,786 17,590	14,674 19,443	15,011 18,963	15,252 19,842	15,410 21,061	16,910 22,479	5,693

있다.

과연 양축가가 바라던 바와 같이 가격을 자유화했다고 해서 품질이 보장 될 만큼 높혀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이것이 가격만 올려 주었지 사료의 품질은 다소는 나아지지만 양축가가 바라는 수준까지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이 벌써 일부 양축가들의 불평에서 반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양축가들이 사료가격의 자유화 이후 별로 품질이 개선된 것 같지 않다는 푸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물론 자유화 이후 오비이라격으로 사료곡물의 도입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원료 가격과 품질 개선에 의한 인상요인을 동시에 반영하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우선 원료가격에 의한 인상요인만 반영하고 품질 개선에 의한 인상 요인을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사료가격 인상 충격을 적게 주자는 배려에서 현재는 실천 못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사료 제조

업자 측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또 서서히 품질 개선을 서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사료 가격을 풀어서 자유 경쟁을 시켜 놓았더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소 사료공장들이 모두 대재벌들의 판로잠식에 의하여 속속 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질을 향상 한다는 점에서는 대기업가들의 참여가 절대로 바람직 하지만 기업 경쟁의 결과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군소공장의 도산은 전체 사료 수급면에서 차질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료 공업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소공장의 통합운영 방식의 도입과 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해서 사료의 량과 질을 다같이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사료생산 체제는 날로 자동화되어 가고 있어 이와 병행해서 사료 공업은 양축업자들의 양축 시설을 기계화 및 현대화

표 8. 옥수수 도입 가격 추세

년도별 구분	도입량(천 M/T)	금액(천 \$)	가격(\$ / 톤)	안정 기준 가격(\$)
'70	259.4	18,992.2	73.22 (100) 22,292(100)	
'71	390.4	26,583.8	68.09 (93) 19,854 (89)	
'72	425.7	26,258.9	61.68 (84) 18,599 (83)	
'73	497.9	54,872.8	110.21 (151) 33,205(109)	
'74	379.8	59,867.4	157.63 (215) 33,293(149)	
'75	387.4	58,466.5	150.92 (206) 30,691 (138)	7 / 31 150(태국산) 31,114 12 / 31 153(미국산)
'76	620.1	79,737.4	128.59 (176) 23,328(105)	1 / 1 132(태국산) 24,490 135(미국산)
'77	1,046.4	120,871.3	115.51 (158) 19,127 (86)	8 / 12 127(태국산) 21,526 130(미국산)
'78	1,573.6	169,507.7	120.48 (165) 17,953 (81)	5 / 22 135 20,117
'79	2,456.2	330,001.0	134.60 (184) 16,882 (76)	6 / 5 135 16,932
'80	2,078.5	355,491.6	171.03 (234)	
7 / 2	836.6	126,792.3	151.56 (207) 17,193 (77)	1 / 22 160 21,601
10 / 21	607.4	104,987.9	172.84 (236) 19,706 (88)	
11 / 6	120.0	22,138.8	184.49 (252) 21,061 (94)	10 / 30 185 21,092
11 / 27	514.5	101,572.6	197.42 (270) 22,479 (101)	12 / 25 195 22,261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양축 경영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양축 경영의 합리화는 품종만 잘 선택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사료관리에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우리가 60년대에는 사료부족 때문에 축산경기가 좌우되는 바 적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와서는 양계, 양돈을 위시해서

모든 양축 규모가 전업 또는 기업화 되면서 경쟁 의식이 농후해져서 풍부한 사료공급이 오히려 불경기를 초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물론 축산물 가격의 이상적인 상승에 불을 조성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1979년도 의 돼지 불황과 같이 필요 이상의 사료 공급이 없었더라도 돼지의 홍수 출하로 인한 불황은 완하 시킬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

표 9. 국내단미사료 가격 추세

단위 : 원 / kg

년도별 원료명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국산옥수수	32.12	33.55	35.00	43.00	75.36	91.66	103.61	113.71	125.31	197.00	210.0
밀	27.95	30.89	28.27	32.48	40.04	38.51	38.83	38.90	38.58	51.00	36.21
백새미	20.37	26.17	23.42	30.21	37.10	34.55	36.09	34.70	38.49	50.53	36.21
설미	20.37	20.46	17.95	17.34	12.20	16.81	21.51	19.64	17.67	14.87	15.00
소맥새	16.85	17.05	14.96	13.99	9.84	13.23	20.54	18.75	16.88	14.20	14.25
맥새	12.96	17.05	14.96	13.99	9.84	12.92	16.73	15.27	13.74	11.57	14.25
암맥새	12.96	18.52	18.52	18.52	18.52	31.48	39.81	39.81	39.81	39.81	76.00
맥강	12.61	17.05	14.96	13.99	9.84	13.23	14.92	13.62	12.26	10.32	14.25
탈지강	12.43	14.76	12.92	12.58	8.85	11.44	14.37	13.11	11.80	9.93	10.31
소맥피	11.69	11.51	10.10	9.44	6.64	10.85	14.06	12.83	11.55	9.72	10.31
대두박	43.24	15.58	21.00	13.89	21.00	21.00	42.22	42.22	42.22	42.22	67.00
임자박	34.93	14.35	16.96	10.49	11.16	8.82	15.82	14.44	13.00	10.94	12.56
호마박	32.06	44.78	51.43	103.70	122.49	122.49	121.68	137.69	122.55	128.36	217.70
아마박	30.14	41.23	41.54	78.32	65.09	51.47	45.61	47.11	37.73	33.26	40.81
채종박	26.00	32.66	36.01	66.64	46.15	37.29	40.42	48.10	41.98	39.35	30.00
어분(하)	40.00	32.06	34.00	58.50	83.24	86.04	106.40	139.72	132.33	148.04	180.00
어분(중)	45.00	29.98	27.46	44.18	44.23	36.15	39.88	47.80	40.74	38.36	33.7
어분(상)	50.00	30.14	30.60	55.00	66.95	67.81	77.56	96.33	120.55	138.50	160.00
		28.18	25.85	41.54	35.57	28.49	29.07	32.96	37.12	35.89	30.00
		26.00	26.13	35.75	76.45	65.00	68.39	92.77	122.45	122.12	116.03
		40.00	24.06	28.88	57.74	34.54	28.74	34.77	41.89	37.60	30.07
		40.00	40.00	50.00	100.00	93.83	100.74	129.06	129.07	159.92	199.13
		45.00	36.83	40.39	75.53	49.86	42.33	48.37	44.16	49.24	51.60
		50.00	41.44	44.43	83.08	59.05	49.60	53.97	76.79	67.53	59.01
			50.00	60.00	120.00	131.60	139.63	182.28	283.57	270.51	284.23
			46.04	48.47	90.63	69.93	58.67	68.32	97.01	83.29	73.65

* '70년도 기준 불변가격 환산

표 10. '79/80 배합 사료 생산 실적

단위 :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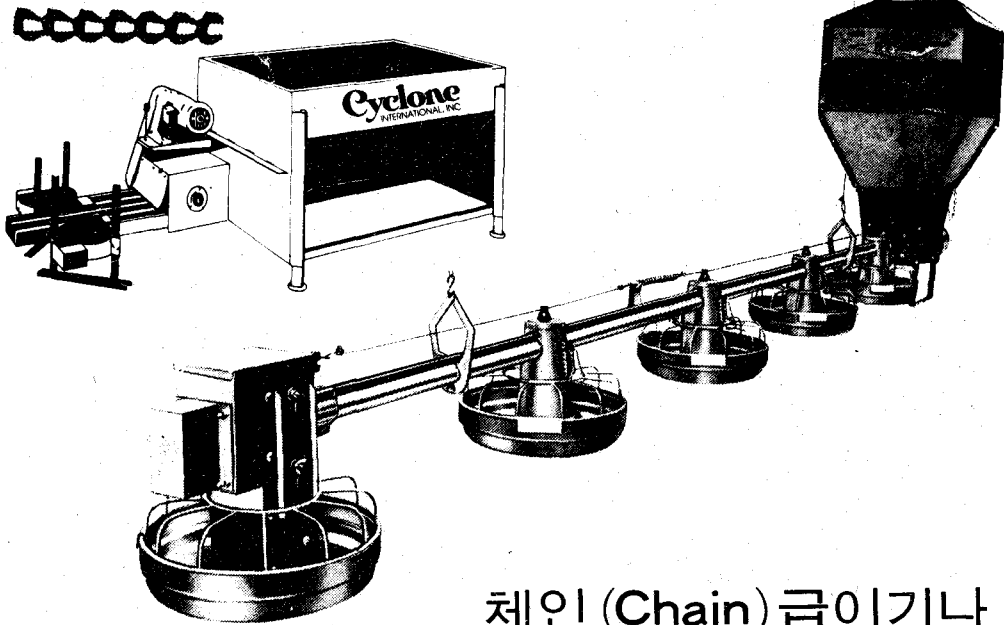
구분 월별	양 계				양 돈				낙농	비육우	기타	합계
	초생우	산란	육계	소계	자돈	육성비육	성돈	소계				
'79	330,230	1,141,449	571,890	2,043,569	135,473	643,701	350,721	1,129,895	438,512	266,206	2,053	3,880,235
1월	29,330	85,511	50,588	165,429	9,113	43,463	18,240	70,816	35,233	21,673	123	293,274
2	31,394	54,704	54,704	172,555	10,048	44,778	19,416	74,242	38,135	19,030	220	304,182
3	35,148	97,095	59,698	191,941	10,311	46,244	21,676	78,231	40,443	20,444	184	331,273
4	32,860	98,239	53,488	184,587	15,474	47,328	25,330	88,132	39,278	21,846	198	334,149
5	34,602	103,286	53,215	191,103	20,019	56,530	32,120	108,669	37,679	23,594	214	361,256
6	27,074	93,250	46,327	166,651	16,068	55,866	32,179	104,113	31,808	16,973	180	319,725
7	23,973	89,360	47,435	160,768	11,220	63,847	33,105	108,172	30,708	19,391	148	319,187
8	20,818	91,535	44,905	157,258	9,330	65,441	35,026	109,797	32,757	20,646	122	320,580
9	20,955	101,383	49,221	171,559	10,221	68,219	39,045	117,485	36,340	26,966	166	352,516
10	20,767	97,524	41,717	160,008	10,993	60,470	36,859	108,332	36,747	23,714	137	328,928
11	24,560	94,336	38,359	157,255	7,337	51,271	31,277	89,885	37,978	27,755	191	311,064
12	28,718	103,472	32,233	164,423	5,339	40,244	26,448	72,031	41,407	26,064	170	304,095
'80	295,801	1,126,470	449,594	1,871,865				769,374	513,667	306,337	1,334	3,462,577
1월	26,672	112,437	24,120	163,229	10,056	63,646	33,410	107,112	47,831	34,386	93	352,651
2	20,775	80,432	11,406	112,613	7,975	36,350	20,097	64,422	36,292	19,170	66	232,563
3	19,896	92,281	22,799	134,976	8,760	35,377	20,277	64,414	42,691	18,962	112	261,155
4	19,991	90,456	39,037	149,484	8,628	29,278	18,080	55,986	43,682	20,090	123	269,365
5	23,848	97,457	50,288	171,683	10,007	27,465	15,528	53,000	43,057	20,204	83	288,027
6	24,569	88,534	53,726	166,829	10,084	25,717	13,685	49,486	39,261	18,077	82	273,735
7	26,998	87,611	57,366	171,975	11,639	27,111	12,813	51,563	40,092	21,344	99	285,073
8	25,452	92,516	48,013	165,981	14,311	32,535	13,113	59,959	44,355	29,503	42	299,843
9	24,904	91,628	39,237	155,769	11,576	33,114	13,689	58,379	43,314	29,926	110	287,498
10	28,094	108,744	36,843	173,681	13,448	43,025	16,498	72,971	50,085	34,877	65	331,679
11	25,750	72,234	28,308	131,292				60,040	40,226	26,901	151	258,610
12	28,852	107,050	38,451	174,353				72,042	42,781	32,897	308	322,381

된다. 사료의 비축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홍수와 같은 공급은 문제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각 가축에 대하여 적정두수 사육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측업무를 정부에서는 강화하고 있다. 관측 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부족감이 있다. 사료소비량, 관측자료, 일반 경제 성장을, 축산물의 소비 성향,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가축 별 경기 지표를 예고할 수 있었으면 보다 양축업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우선 표10에서 79/80 배합사료 생산 실적을 참고해 보면 일반적으로 79년도에 비하여 80년도에 15% 경제 성장 계획에 △6%가 되었으니까 최소 21%의 감소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사료가 소비되고 있으니 불황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계 중에도 육계는 사료량이 21%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불황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채란계는 일반 경기가 후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량의 사료가 나갔으니 불황을 면할 길이 없다. 양돈은 사료량이 30% 정도 감소된 상태를 80년도를 통하여 일관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상승 하는 이상호황도 잠깐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안정된 경기를 유

지 할 수 있었다. 낙농은 우유 수요자 감소 또는 담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합사료의 월별 소비량이 증가 한다는 것은 우유체화가 불가피한 전망을 말해주고 있어 저능력우 및 노폐우의 조기도태와 우유의 소비촉진이 시급하다. 이와같이 사료 생산량은 경기예고 지표로 잘 활용하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체인 (Chain) 급이거나
오가 (Augar) 급이기를
제조회사에서 직수입해 드립니다



Cyclone 과학축산시스템
INTERNATIONAL, INC.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52
전화 : 792 - 7212 · 7887

수입
판매
엔지니어링